

## 조선대총동창회, 31명에 장학금 3100만원



조선대총동창회(회장 이정남)와 재단법인 조선대총동창장학회(이사장 이원구)는 지난 13일 2013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31명의 학생에게 총 3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호남대, 조혜련·혜숙 자매 홍보대사 위촉



서강석 호남대학교 총장(사진 중앙)은 최근 광산캠퍼스 창조관 총장실에서 방송인 조혜련(사진 오른쪽)씨와 중국어 명강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조씨의 동생 조혜숙(왼쪽)씨 자매를 호남대 공자학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광주여대, 중등특수교육과 수련회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주자문) 중등특수교육과는 최근 '전공과 함께하는 MT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중등특수교육과 MT행사는 기준 신입생 MT 행사와 달리 학과전공의 이론 및 실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기획·운영됐다.

## 광주대, 축구·농구 우승기 전달식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는 최근 전 교무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전국총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한 축구부와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정상에 오른 여자농구부로부터 우승기와 우승컵을 전달받았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mailto: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정선호(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개원준비단장·前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임현숙씨 장남 유희근(한화에너지 근무) 유종술(전남 여수 성산초등학교 교사)·최행담씨 장녀 유리양(전남 여수시청 근무)=16일(토) 낮 12시 괴리워렌션센터(서구 치평동) 3층 메리끌드홀.

▲문복순씨 장남 이재민(삼성전자)군 나천수(전남도 의사회장·순천나루부인과원장)·강정선씨 장녀 성진양=16일(토) 오후 2시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서생현(조선대 평생교육원 교강사회 수석부회장)·최경화씨 장남 준오군 박승군·조연자씨 장녀 영신양=16일(토) 오후 11시 40분 수아비스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故意 이충노·최영순씨 장남 중진군 정진백(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장)·양인모씨 딸 유선양=16일(토) 오후 1시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월례회=15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백화점 9층 천안문 062-221-1901.

▲북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16일(토) 오후 7시 수립식당 062-223-0028.



문 석·이기순씨 부부가 지난 13일,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에덴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 '국민훈장'



강현욱 조선대학교 이사장이 지난 2년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1등급(무궁화장)을 받았다.

국민훈장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무궁화훈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등 5등급으로 시행되고 있다.

강현욱 이사장은 2011년 2월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군·구의 개편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강현욱 이사장은 농림수산부·환경부 장관, 관·민선 전라북도 도지사, 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선대 이사장과 새만금 명예 자문관 등 교육 및 국가 기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정영오·이건택·최용실 씨



함평군 공무원노조 '베스트 간부'

정영오  
이건택  
최용실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교학면장〉

## “여섯째 아이, 여섯배 더 기뻐요”

## ‘다둥이 가족’ 장흥군 문 석·이기순씨 부부

“엄마, 동생 이름은 별이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별처럼 예쁜 동생이니까요.”

아영(8)양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 눈도 뜨지 못한 동생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원장·Hur)에서 문석(45)·이기순(여·38)씨 부부가 3.24kg의 건강한 아이를 자연분만했다. 여섯번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같은 병원에서 낳은 것이다. 행복한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옆에는 이 병원에서 태어난 5명의 언니와 오빠가 있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지민(6)양은 “엄마, 동생 쓰다듬어 주려고 손 속독에 바르고 앉는 데 제가 안아줘도 돼요?”라며 작은 동생이 신기한 듯 눈을 빼지 못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70년대 4.53명으로 멕시코(6.77명), 키타(5명)에 이어 높았지만 2010년 들어 1.23명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으로 지난 2012년(1.24명)보다 약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명)에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 시대, ‘다둥이 가족’의 아파 문석씨는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행복하다는 말 이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

하겠어요? 애들 엄마가 매번 고생하지만 아기를 볼 때마다 정말 좋네요.”

장흥군 장동면에서 금실 풀기로 소문난 문씨 부부는 1만5000원의 땅을 일구며 벼농사 를 짓고 있다. 지난 2000년 종묘로 만나 2001년 부부의 연을 맺고 다음해 9월에 태어난 아이가 첫째 정인(12)양이다.

“저희 부부가 농사를 짓느라 바쁠 때마다 정인이가 동생들을 잘 돌보며 엄마를 많이 도와줘요.”

첫째 딸은 아빠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잠에서 깨까봐 아빠를 자기 방으로 불러 같이 잘 정도로 의젓한 밤이다.

반면, 딸 부자집의 유일한 아들이자 3일 전까지 막내였던 인호(3)군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인터뷰 내내 양손에 누나들의 신발을 들고 다니며 가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가족들이 잠시 방식한 사이 인호군이 넘어지자 엄마는 반사적으로 ‘5번’을 외치며 일어섰다. 이기순씨는 “아이들이 많아서 금 할 때는 이렇게 부른다”며 울고 있는 인호군을 달랬다. 딸 부자집의 가장에게 혹시 아들을 낳으려다가 이렇게 대가족이 됐는지를 물자 “요즘에는 딸들이 더 효도하지 않느냐?”며 “아들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옛말”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현재 셋째 아이를 출산 축하금으로 4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씨는 “군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저기귀 등 육아용품이 워낙 비싸서 그 정도 비용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씨 부부는 에덴병원에서 여섯 아이를 출산한 것이 인연이 돼 출산비용·육아용품을 지원받았는데 이러한 지원이 사회 곳곳에서 늘 어나야 출산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민서(10) 낳을 때 장흥에 야간 분만이 가능한 곳이 없어 광주까지 오는 차 안에서 아이를 받았어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섯 자녀의 아빠로서 최근 광주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투신한 엄마의 소식을 들은 남정은 어땠을까?

“도시사람들이 편하게 살지만 정서적으로 너무 각박해진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건 끊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석씨는 농촌에서 생활하면 일은 힘들지만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극 단적인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희생된 아이들을 위로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영광군 5개 지역농협장 워크숍



농협 영광군지부(지부장 김충현)와 영광군 5개 지역농협장은 최근 부안 NH보험수련원에서 농협 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광군 농정시책에 부응하는 농업인 실의증대 방안’, ‘계통간 하나 되기 추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영광군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 등 4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지부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농업인 실의증대를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 확대 추진, 농협인 마음 상생행사 및 수도권 등 계통 농협 향우 초청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합의했다. 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행복나눔봉사단 운영과 직원 성금에 의한 복지기금 조성도 약속했다.

김 지부장은 “앞으로 자주 만나 다양한 연합사업을 구상하고 쌀조합 공동사업법의 운영방향에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는 영광군 김용태 친환경농정과장도 참석해 군의 농정 운영방향과 사업을 설명하고 농협 영광군지부, 지역농협과의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 신안회, 7년째 이웃돕기

## 매달 5만원씩 모아 인재양성 등

신안군 한 친목단체가 7년째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역 인재 양성, 불우 이웃 봉사 등에 나서 헌금을 주고 있다.

신안 14개 읍면 주민 26명으로 구성된 신안회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에 보탬이 있는 일을 해보자고 기부함에 매달 5만원씩 모으고 있다. 모인 돈은 그때 그때 회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은 곳에 지출한다. 지난 2009년부터 불우한 지역민들에게 쌀 30kg을 매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암태면 신성리 교회와 각 읍면에 쌀 2마리씩 전달했다.

지난 4일에는 암좌·암해·지도·하의·임자고등학교 등의 입학생 7명과 흑산면 김예진 학생 등 3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신안회 최영민 회장은 “인재양성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화족

4층 그랜드볼룸.

▲정종영씨 장남 천주교 한용순(순천 법무사)씨 딸 아름양=16일(토) 오후 2시 서울 메모리스웨딩홀 4층.

▲정희복·정을희씨 장남 일원군 이승옥(전남도청 관광문화국장)·김운옥(전남도청 세정과 세외수입담당)씨 장녀 가영양=17일(일) 낮 12시 서울 서초로얄프라자 1층 다이아 몬드.

▲양종열·배정자씨 이남 시인(화순군수방서)군 이승범·김미순씨 삼녀 재나양=16일(토) 오후 11시 예술의 전당 아트홀 1층.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010-7578-9899(분원장이금수).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정기총회=16일(토) 오후 10시 30분 광주향교 유림회관 대강당 062-228-3368.

▲홍양이씨 매곡공파 종친회(회장 이행선) 정기총회=16일(토) 오후 6시 30분 남광주농협 3층 회의실(남구 주월동) 010-6610-3685.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회 3월 월례회의(회장 이의준)=19일(화) 오후 7시 062-225-5631.

▲말레이시아 REAL대학 초청 조기유학 설명회=29일(금) 오후 11시 무등빌딩 5층 유학허브 무료 SLEP TEST 선착순 접수 062-263-3434.

지원 여성 이화회 3월 월례회의(회장 이아희)=22일(금) 오후 11시 062-225-5631.

▲힙합이씨 광주정기총회(회장 이재우) 및 한마당큰잔치=23(토) 오후 10시부터 오후 2시 삼무중학교 대강당(운천자수지 위 금호동방면)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010-662-1366.

▲무료 일코울상담=일코울,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을 실시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062-526-3370.

▲밀양이씨 REAL대학 초청 조기유학 설명회=29일(금) 오후 11시 무등빌딩 5층 유학허브 무료 SLEP TEST 선착순 접수 062-263-3434.

▲한국실버복지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 주기, 묘자리 봄기(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 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 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 모집

▲문화 축구단회원=북구 문화초등학교 매일 오후 6시 20분 010-8542-3366(이성희).

▲조기축구 회원=운동으로 신체와 마음